

문학의 감상과 삶의 거리

정 병 현

1. 책을 읽는 이유를 말해야 하는 까닭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삶의 滋養이 된다는 지극히 추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책을 읽어 왔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일에 從事하기도 한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책을 읽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그것의 해답을 구하는 것은 마치 아들 딸 낳고 아무런 잘못 저지르지 않고 잘 사는 할머니에게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삶이란 설명의 필요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념이나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고 존재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시될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그래서 한없이 주눅이 들 수도 있다.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왜 사는가 하는 문제는 당혹스런 질문이기 쉽다. 삶과 이념은 하나로 융해되어 서로를 분리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은 문제를 위한 문제의 제기와 같은 성격도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순히 生活人이기를 지향하는 사람에게 있어 그러한 질문이나 해답을 추구하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거

나 아니면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문제와는 답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실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책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 '책을 읽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삶의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이 또한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하기 至難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삶과 독서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삼스러운 물음'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문은 다시 되물어져야 하는 것이다.

독서와 삶을 동일한 궤도 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문화 현상으로서의 독서를 존재의 필연적 모습인 삶만큼이나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데서 起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은 아마도 읽고 가르치는 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自己 顯示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嫌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專業으로 하는 일의 기반이 되는 독서 행위를 인간이 영위하는 수많은 문화 중의 하나로 끌어내릴 때,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 자체와는 차원이 다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엄청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독서를 기반으로 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독서 또한 충분히 그런 존재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그들과 다른 것은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가 그 전달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言語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독서와 항상 접해 있는 사람은 그 독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언어를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더구나 발달이나 발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반복만이 지속되는 지리한 여행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자각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의 해답을 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거나 또는 당혹의 대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새삼스러움’의 문제이다. 發題의 글에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훑아 다니며 실리고 있는 ‘별’이라는 작품의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의 궤적이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어떠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는 현실이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는 왜 어떤 작가의 글이 특정 학년의 특정 단원에 실려 있는가, 그리고 그 작품은 다른 학년의 작품 또는 동일 학년의 다른 작품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용의 계열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작품을 선택하였다는 대답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작품은 지식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왜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러한 질문이 국회에서 던져졌을 때, 우리는 ‘교과서 편찬자의 오랜 經驗과 이에 바탕한 直觀’이 그렇게 하였다는 답변을 접한 일이 있다. 그것이 당시로서는 최상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대단히 낮뜨거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 편찬자만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러한 배열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체계화시키지 않은 理論 提示側의 사람들이 부끄러워 할 일인 것이다. 또는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지 못하게 하였던 사회 전반의 총체적 책임으로나 돌려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교과서가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은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각 참고서는 교과서의 일자 일획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살살이 뒤져 보여 해설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가슴 속에 막연히 세워져 있으리라는 그 기준에 의하여 교과서는 편찬되고 있다. 한 번의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준은 그 다음의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전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슴 속에 존재한다는 그 기준도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이로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바람직한(?) 교과서를 대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불확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도 교과서는 편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교과서 편찬자의 그러한 대답은 그저 별수없는 일로 용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질문을 다시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새삼스러운 일이기 쉽다. 그러나 이 새삼스러운 질문을 ‘感’과 ‘經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로 放棄하는 것은 사태를 영원히 해결하지 말자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의 문제로 국한하여 말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화 현상에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도 당연하고 의심할 바 없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의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神을 神의 領域으로 보내고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신성적 존재에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신까지도 이러한 새삼스러운 질문을 통하여 질서지웠는데, 하물며 인간의 다양한 문화 현상의 하나인 독서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옆에 分身처럼 존재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이 새삼스러운 질문을 떠올리고 또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그러했던 것처럼 독서 문화의 質的 變化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2. 책은 왜 읽는가

책을 읽는 이유를 말하기 위하여 우리는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대상이 확정되었을 때, 그 대상을 향한 주체의 행위는 어떤 의미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읽어

습득하여야 할 만한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책은 읽어야 하는 당위적 존재이다. 그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왜 우리가 습득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인간은 자신 이외의 존재와 만나면서 자신을 형성하고 또 변화시킨다. 태어나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환경과 만나고, 또 주어진 시대와 만난다. 그 주어진 환경과 시대는 그 사람의 앞날을 예측하게 하는 객관적 존재로 자리잡게 된다. 환경과 시대는, 그 앞에서 인간들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환경과 시대가 개별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인간과의 만남이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환경에 놓여진 존재의 다양한 생활 방식은 그와 관계를 맺는 인간으로부터 영향받는 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他人이란 결국 그에게 짐지워진 歷史性으로 달리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당대적인 것으로는 특정한 인간으로 구체화되지만, 그것은 역사와 문화의 축적을 傳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抽象的 存在이다. 사회에 길들여지고, 또 그 길들이는 주체로 활약하는 그들에게 있어 그 길들이는 내용은 결국 그들이 이룬 문화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나은 현재를 설계하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는 전수의 흐름은 바로 그 개인이나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드러내는 尺度로 작용한다. 그 전수의 통로가 차단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그러므로 문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차단이나 왜곡이 다시 회복되거나 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하여는 그렇게 한 만큼의 對價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러므로 한 개인을 살찌우고, 한 국가를 도모게 하는 至高의 課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그 傳授의 量이 어떠한냐, 또는 그 質이 어떠한냐는 한 인간, 또는 한 국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徵表가 되기도 한다. 그것이 곧바로 한 나라나 개인의 문화적 역량으로 귀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 當代의 인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수의 양은 자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어차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
을 받는 존재이고, 그러니 아무리 천재이고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그 양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책은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기 위하여 만들어진 문화 유산이다. 책을 구성하는 문자가
이미 말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책을 통하여
우리는 먼 지역의 사람과 대화하고, 또는 오래 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
과 대화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수단으로 이루어진 책과 그것을 읽는 행위는 앞에
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상과 관계를 맺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수많은 문화 현상의 하나이다. 독서란 문자가 생긴 이
후 지식을 습득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이
다.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過程’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화의 전수자는 지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문명
의 발전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수가 없으면 발전
이 가능하지 않고 영원한 踏步만이 지속되는 것이다.

하여튼 현재의 상황에서 문자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루어지는 책만큼
광범위하고 강렬한 전파력을 지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고학적 유산
이나 음악, 또는 그림 등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제작한 사람들의
감정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언어로 치환되어야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책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언어 이상의 정확한 표현 수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을 살찌우고 국가의 풍요를 바란다면, 당연히 책을 읽어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속적인 독서가 현실적인 발달로 귀결되었
던 시대이거나, 인간성의 풍부함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는
시대이거나 독서의 가치가 조금도 시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이미 선인들이 마련한 틀 위에 자신의 새로움을 더하는 행위이다. 인간다움의 덕목을 실현하기 위하여도 우리는 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놓인 수많은 정보는 그것을看過할 때, 다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압박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 그리고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었던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어떤 효용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讀者 각각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책을 통하여 정서를 살찌우려고도 할 것이고, 책을 통하여 첨단 정보의 획득을 꾀하려고도 할 것이다. 그 필요성의 다양함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이제 ‘책은 왜 읽는가’라는 질문을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 독서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독서와 삶의 문제는 辨別되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독서와 삶이 결코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마치 숨을 쉬는 행위와 같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고,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追後의 문제이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나 선택의 기준도 여기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나 선택보다 책을 읽어야 하는 당위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3. 삶의 한 표현으로서의 문학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그러니 조형 예술인 미술은 보고, 시간 예술인 음악은 듣는 것처럼 언어 예술인 문학은 읽도록 운명지워진 것이다. 이 보고 듣고 읽는 모든 행위는 그 대상이 인간의 어떤 한 순간의 측면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인식 행위와는 구별하여 鑑賞

이라 한다. 그러니 문학을 왜 감상하는가 하는 문제는 왜 예술을 감상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예술 예컨대 음악이나 미술의 감상 행위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삶의 본질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언어로 이루어진 특정한 한 분야인 문학에 대하여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문학의 감상도 같은 水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학은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굳건하게 서 있다. 읽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야말로 국력을 기울여 온 국민을 이 길로邁進시키고 있다. 그것이 과연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도 없었고, 또 그 길로 몰아가는 방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도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독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성글게나마 규정하고 나갈 필요를 느낀다. 먼저 대상을 확정하고, 그 대상과 주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감상의 효과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작가, 작품, 독자와 작품 속에 반영된 세계 사이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의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대체로 언어 예술, 虛構의 産物, 상상의 산물, 그리고 독자와의 대면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존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문학은 실제의 기록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허구의 차이가 변별되지 않는다.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모습은 시일이 흐르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게 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허구의 의미는 무질서한 듯이 보이는 현실의 것을 질서화한다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 관련없는 사 람들과의 부딪침이나 허무함일 수 있는 슬한 일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

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허구는 관련있는 것만으로 사태를 압축하고, 관련없는 것은 제거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질서한 현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森羅萬象은 각각 자신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이니, 만약 그것이 질서화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 질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작가는 그 나름대로 무질서해 보이는 현실의 질서를 발견하여 제시하는 자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발견된 질서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독자는 그러한 발견된 질서를 보며 자신에게는 없었던 (사실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자신도 새로운 질서를 찾는 작업에 同參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독서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자신의 소양을 살찌우게 된다.

문학 작품에서 사실이나 현상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넓은 의미에서 想像力이라고 한다. 작가가 발휘하는 상상력과 독자의 상상력이 서로 어울리고 맞아 돌아갈 때, 문학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결국, 독자가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작품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이 스스로의 洞察과 觀照에 의하여 자기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무한정으로 넓고 깊은 체험을 하기는 어렵다. 우선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어디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험하기 어려운 일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작품을 읽음으로써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인공이 겪는 체험 속에 자신을 투영하고, 함께 즐거워 하고 슬퍼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우리들의 체험을 넓혀 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작가의 물음에 어떤 답을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작품일수록 독자에게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물음을 던진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읽고 그 뜻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먼저 작품을 타하는 것은 성숙한 독자의 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작품이 일단 무질서한 듯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것처럼, 독자는 또 무질서한 듯이 보이는 작품의 질서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는 즐거움 속에서 찾아진다는 것이 또한 문학의 중요한 궤로로 지적된다.

그런데 예술 현상은 자연히 읽고 보고 들어서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원천적으로 즐거운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예술 현상의 基層에 놓이는 극히 稀少한 부분이다. 이에 바탕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고급의 예술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기층의 현상을 이해하여야 하고, 그 위에 작가의 개성적 표현을 간파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닐 때에 독자와의 交感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한 정도의 굴절을 통과함으로써 그 즐거움과 예술에의 동참 효과는 더욱 커지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 예술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을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檢證은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즐거우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라는 것은 幻想에 불과한 것이다. 작품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의 방향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단이나 민족, 인종이 달라지면 그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줄리움을 억지로 참으면서 그 예술 현상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로 자연스럽게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즐거움은 어쩌면 訓練 또는 社會化에 의해서 習得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적이라는 말로 각 개인을 훈련시킨 결과,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지고, 또 그것이 자신의 본질인 양 치부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 우리는 문학이라는 것을 두고 서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 비슷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서로 생각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학의 힘이다. 이를 달리 ‘文學的 文化’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적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문학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 문화의 관습은 이른바 古典이라는 것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고전이라는 것의 선택은 또한 일정한 정도의 사회

적 제약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이라는 것이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認知되는 일이다. 학문 분야가 다를 때, 그 고전은 개념을 달리 규정하여야 할 정도로 그 內涵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문학적 문화의 관습이 형성된 淵源이나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은 타당한가 하는 새삼스러운 질문까지도 던져야 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찾아내는 관습이 어느 一面만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결과도 장님과 코끼리의 우화를 통하여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 총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당위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대상의 인식은 언제나 이러한 부분성 또는 자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대상과 주체의 비극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작품은 언제나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읽는 사람은 자신의 체험과 세계를 이해하는 눈으로 그 글을 읽고, 자기 나름의 새로운 발견을 이룩한다는 사실은 결코 이러한 우화의 메시지와 구별되지 않는다.

4. 문학은 왜 감상하는가

이제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학 감상의 이유를 정리하고자 한다. 문학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것의 ‘實用性’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정서적인 감동일 수도 있고, 또는 구체적인 지식을 얻는 것일 수도 있다. 정서와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학을 감상하게 하는 필연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보다 예리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대상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전문가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겪지 못한 체험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한다. 그것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것일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 충격을 통하여 보통의 삶은 더 가치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唾棄의 대상으로 변모될 수도 있다. 자신을 돌아 보게 함으로써 일상의 삶은 보다 양질의 것으로 승화될 소지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문화가 결국 인간을 잘 살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문학의 감상은 여기에 가장 잘 부합되는 문화 현상이다.

우리가 문학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식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다. 일상적인 의미의 지식은 작가에 의하여 해체되고, 다시 작가 자신의 체계에 의하여 질서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자는 그 길에 동참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심리 속에서 다시 구성하는 체험을 한다. 일상적인 경우, 타인의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追從하는 것은 先人들이 이미 警戒하던 바이다. 얻고자 하는 목표나 대상은 같을지 몰라도, 그 주체와 환경이 변하였기 때문에 이미 쓰여진 방법은 時效가 喪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많은 예를 동원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만족할 만큼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문학은 이를 具體的 狀況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도깨비 방망이’나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는 행운을 얻은 사람의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불운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학이 주는 지식은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어 삶의 양상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식과 정서의 사이에 우리는 많은 항목들을 놓을 수 있다. 지식으로 과도하게 傾斜할 때, 그것은 예술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리고 정서 쪽으로 과도하게 경사할 때, 그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층과 하층으로 결합되어 사이좋은 화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학의 진정한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대립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포용하고 감싸야 하는 애정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문학의 감상은 그 의미를 획득한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總體的 實利와 效用을 우리는 ‘實用性’으

로 규정할 수 있다. 문학이 우리의 삶과 문화의 전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강제로 읽혀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문학과 의 대면에 많은 시간을 投資할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삶의 한 중심에 놓이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